

또 최측근 구속...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

〈정진상〉

민주 “검찰 조작 수사” 강력 반발...야당 정치탄압 총력 대응 방침 잇단 ‘사법리스크’ 당내 긴장감... ‘민생 드라이브’ 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민 주권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당내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반적 분위기는 일단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흐름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로 향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귀정이며 이제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재 정비,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의 구속이 ‘후일 당반’인 상근부대변인 대신 임오경 대변인이 직접 국회에 나와 브리핑을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임 대변인은 지난 19일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맞춘 진술

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진상 실장을 ‘정치적 동지’로 일컬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민생을 토대로 민심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여론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자칫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도마 위에 올랐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결국 현실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올해 안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당초 예상보다 이르는 하지만 그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진상 실장의 구속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카드에 약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 실장의 구속과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나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황당한 억지 주장, 민주당의 조작 음모 선동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 라인을 넘었

다”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법원이 8시간 넘는 직접 심문 끝에 정 실장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이 조작적이고 인간사냥이라는 것은 억지”라면서 “결국 조작인지 아닌지, 이재명과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인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라고 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 사법위장”이라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로써 좌(左)진상, 우(右)김용이 모두 구속됐다”며 “진실이 이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무능력도 탄핵 대상”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송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퇴진” 공개 주장 나선 野 의원들

안민석·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7명 서울 도심 촛불집회 참석

무소속 민형배(광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나섰다. 이날로 15회째 집회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행사 단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유정주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 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외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그는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0·29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2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전막 농성을 시작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본사 불공정 막고 가맹점 교섭력 강화”

상생꽃달기 행사 책임위원 참석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지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에 책임위원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의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약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영덕은 협약체결을 담당할 책임위원으로서 ‘10여 차례에 걸친 당사자 면담과 3차에 걸친 협약 추진, 국정감사 증인신문 등’ 협약 체결 과정을 설명하고, 가맹업체 최초로 본사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소위 ‘오너리스크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의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책임의 신속한 확정·이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과 과도한 필수물품 구입강제 방지 등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가맹점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보고하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금번 협약이 SPC그룹 혁신의 촉매가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가맹업체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완공 1년 앞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순조

김영록 지사 현장 점검...197억 들여 평화의 탄생 등 3개 테마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기리기 위해 김대중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 중인 신안 하의도를 방문,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우량 군수,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조성 현장을 살피고 박 군수 등과 하의도를 동북아 평화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20년부터 197억원을 들여 전남도가 추진 중인 신안 ‘한반도 평화의 숲’은 오는 2023년 11월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숲은 신안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일원에 ‘평화의 탄생’, ‘인동초 정신’, ‘평화의 마당’, 3개 테마로 조성된다. 신안군은 2800억원이 필요한 장산도와 신의-

하의도를 잇는 국도2호선 2.2km 구간 연도교 설치 사업도 추진중이다. 한반도 평화의 숲의 제1테마인 ‘평화의 탄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출생지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후광 기념관 건립, 후광 평화광장, 배롱나무정원 등이 들어선다. 후광 평화광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진입 320m 구간에 60m 폭으로 경건하면서 웅장한 감동을 주는 잔디광장과 후박나무-굴거리나무숲이 조성된다. 후광 기념관은 김대중 생가 모양을 형상화했다. 탄생부터 서거까지 생전의 업적을 조명하는 시설이다. 생가 인근에 있는 소금 박물관을 활용한 김대중 정치역사 아카이브홀로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동초 정신’은 고난을 이겨내고 남과 북을 아우른 삶을 주제로 인동초와 하굴나무 1만 그루를 심어 김대중 기억의 숲길로 조성된다. ‘평화의 마당’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이다. 큰바위열굴 일원에 해양 선셋공원이 조성되며 큰바위열굴 섬과 바다전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숲가꾸기 및 섬숲 복원사업 등과 연계해 숲속 쉼터로 조성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위해 전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대통령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신안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을 세계평화의 성지로 널리 알리기 위해 웅장하고 감동있는 명품숲으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